

# “광주에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 이용섭 시장, 제27차 민생경제 현장투어로 뉴서광(주) 방문 올해 하남산단으로 이전...300억원 투자 150명 일자리 창출 기업 인력채용, 산단 환경 개선, R&D분야 지원 등 확대 건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제27차 민생경제 현장투어 전자제품 부품 생산기업인 뉴서광(주)(대표 이상섭)을 찾아 근로자를 격려하고 기업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뉴서광(주)은 지난해 5월 광주시와 3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후 올해 1월 장성에서 광주 하남산단으로 이전했다. 냉장고, 에어컨 등 생활가전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연매출 820억원의 유망 중소기업이다.

특히 삼성전자 1차 협력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삼성전자 해외공장 철수 등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늘어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에는 관내 우수기업을 광주시에서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제9기 명품강소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1공장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으며, 2공장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신속 중이다. 광주시는 2공장이 완공되면 150여 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 이용섭 시장은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현장 근로자를 격려하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 운영, 제2공장 신축과 관련한 애로사항, 지원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뉴서광(주)은 2공장 신축에 따라 인력채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이 16일 오전 제27차 민생경제 현장 정책투어의 하나로 하남산단 내 뉴서광(주)을 방문해 생산공정을 둘러본 후 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분야 중소기업 기피로 인한 채용 어려움 해소, 제품 연구개발 R&D 분야 지원 확대, 이 전기기업의 초기 원활한 정착을 위한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기업이전을 추진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줘 감사드린다”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뉴서광(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섭 뉴서광(주) 대표이사는 “광주에 와서 사업을 해보니 광주 이전이 잘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부단한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통해 타기업이 따를 수 없는 우수중소기업이 되도록 이끌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윤규진 기자



전남공도협회 선수단이 두 개 대회 연속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며 올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사진은 남자 일반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전남공도협회 선수단. /전남도체육회 제공

## “백발백중” 전남공도협회, 대통령기 제패하며 2관왕 달성 제59회 전국시도대항 공도대회 남일 단체전 금·김송현 개인전 금 획득

전남공도협회 선수단이 두 개 대회 연속 개인전과 단체전을 휩쓸며 올 시즌 2관왕을 달성했다.

전남공도협회는 15일, 강원도 평창군 태화정에서 열린 제59회 전국시도대항 공도대회에 출전해 남일부 단체전에서 금메달, 개인전에서 김송현(신안 용항정)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7월, 경북 안동 영락정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공도종별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백발백중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전남공도협회는 최고 권위의 대통령기대회까지 모두 제패하며 전국 최강의 실력을 뽐냈다. 이기효, 하선범(이상 신도 창덕정), 김경하, 김송현(이상 신안 용항정), 안용환(강진 관덕정), 김도성(나주 인덕정) 고민구(고흥 흥무

정)가 출전한 단체전에서 110종을 기록하며 100종을 기록한 전북을 일찌감치 따돌리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어 개인전에 출전한 전남공도팀은 김송현이 25발 중 24발을 명중시키며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1순부터 4순까지 모든 화살을 명중시킨 김송현은 마지막 5순에서 한발이 아쉽게 빛나기 퍼펙트 우승을 놓쳤다. 지난 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퍼펙트 우승을 달성한 고민구와 김도성은 개인전에서 각각 22종을 기록하며 장려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체육회 김재무 회장은 “전남공도협회의 올 시즌 2관왕을 축하 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훈련의 약조전 속에서도 꾸준한 땀방울을 흘리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하 전남농과)은 인구문제 해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한 우수 마을 및 기업을 선정, 시상하기로 했다.

## 광주시, 집중호우·태풍·코로나19... 구조·구급 늘어 9월까지 화재·구조·구급 통계 분석, 수난구조 361건으로 대폭 증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가 올해 9월까지 광주지역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과 9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난 구조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구조건수는 총 4318건으로 전년 3982건 대비 8.4% 늘었으며 하루평균 15.8건에 7.7명을 구조했다.

이 가운데 전년 18건이었던 수난구조는 379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구조건수가 늘어났다. 이는 8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내린 집중호우와 8-9월 복잡한 태풍에 따른 시설물 침수 사고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로 음식 등 배달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전년 대비 113건(365%) 증가했

다. 생활안전분야 처리건수는 하루평균 35.2건 총 9645건으로 전년 대비 15.1%가 늘었다. 특히, 자연재난과 관련된 출동이 8-9월 연이은 태풍으로 전년 대비 464건(238%) 증가했으며, 이 외에도 동물포획 339건(24%), 별집제거 190건(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는 하루평균 2.4건으로 총 647건이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18명으로 전년 22명 대비 18% 감소했고, 재산피해는 25억 8000여 만원으로 전년 38억 4000여 만원 대비 33% 감소했다. 이 중 부주의 화재는 담배꽂이 113건(31.9%)과 음식물조리 88건(24.9%)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 산업시설 등 비주거 장소가 238건(36.8%)으로 많았다. /박은진 기자

## 전남도, 홀로사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등 9천 800세대에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확대 보급한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이 휴관 조치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을 축소되면서 취약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에 출입·움직임·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해 어르신 일상 생활을 관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기존에 설치된 장비 1만 3천 518대 중 노후화된 장비 8천 180대를 교체하고 신규 대상자를 위한 9천 874대를 추가 보급해 연말까지 홀로사는 어르신 등 2만 3천세대를 대상으로 돌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가정에서 감지된 데이터는 시군 응급관리 지역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특히 일정시간 움직임이 미감



전라남도가 65세 이상 홀로사는 어르신 등 9천 800세대에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 보급한다. /전남도 제공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9천 8백세대 확대 보급

지되거나 화재감지, 응급호출 시 응급관리요원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119와 연계해 신속히 대응을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지속 증가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돌봄이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ICT장비 확대 보급, 돌봄이 필요한 노인 지속 발굴로 고독사 예방 등 돌봄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 전남 인구문제 극복 우수 마을·기업 발굴 4개소 선정 1천만원 상금

전라남도는 인구문제 해결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한 우수 마을 및 기업을 선정, 시상하기로 했다.

이번 선정은 전남도내 마을 및 10인 이상 고용 기업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평가는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비롯 지역 공동체 강화, 소득증대, 청년고용 확대, 가정친화 및 도내 거주 분위기 조성 등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기여도를 심사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한 마을 또는 기업은 10월 말까지 소재지 시군 인구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인구증가 및 고용확대 실적, 외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총 4개소를 최종 선정해 상패와 함께 총 1천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선정된 우수 사례 및 시책을 시군에 대대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김재섭 기자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전문

신용불량을 정상으로 돌려드립니다.  
빚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희 박연희 법무사는 회생과 파산만 전문적으로 하고있으며 지금까지 총 3,000건 이상을 처리 했습니다.  
믿고 맡기시면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중앙로 114(상무랜드피아 312호)  
T:010-3643-0590 사무실:062)383-5118  
FAX:062)443-0102 E-mail:same2866@daum.net

법무사 박연희 사무소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국토의 실패를  
생각을 살립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